

로마서: 믿음의 삶

11주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로마서 8:1-11

2022년 9월 11일

- 오늘은 흥미로운 날입니다.
- 9/11이 일요일때는 혼하지 않습니다.
- 이 날은 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 우리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 저는 9/11 테러 이후에 공기 중에 이례적인 긴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 합니다 .
- 국가로서 우리의 자유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전국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그 큰 그림과 같이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다른 작은 자유를 포기하거나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
-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그 이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 그리고 여기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의 귀가 번쩍입니다.
-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 그래서, 당신에게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 마음으로 자유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무엇을 그린 것 입니까?
- 산꼭대기의 풍경이 될까요?
- 독수리가 솟아오르겠습니까?
-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일까요?
- 나는 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조금 후에 공유할 것이다.
-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자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로마 교회 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

-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 그리고 그는 어떤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주제나 생각 중 하나는 우리가 그가 말하는 '육체'에 속박되어 있거나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 즉,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거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너희도 자유롭지 못하며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지적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문화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입니다.

- 요즘 사회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할 때 자유가 온다는 말을 합니다 .

- 당신의 감정을 따르십시오.

- 욕구를 충족시키십시오.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입니다.

-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나는 명확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자아?

- 바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기 때문에

- 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가 있습니다.

- 새로운 브랜드 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 문제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

- 우리는 투쟁합니다. 평범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거나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신 것들을 극복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하여 지상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 승리를 위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가?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좌절하며 인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 이시며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 오늘 우리는 자유인답게 살고 자유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 성경이 나와 함께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화면에서 따라 할 수 있다면...

로마서 8:1-4

1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 여기서 잠시 멈추고 처음 네 구절의 압축을 풀고 싶습니다.

• 그리고 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종의 비유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 일러스트레이션: 립타이드

• 당신은 해변에 있습니다.

• 물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 아마도 오레곤 해변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 그래서, 당신은 물 속으로 나가서 자신을 즐기고 있고, 어떤 위험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이것을 동해라고 합니다.

• 조심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 수영을 시작하고 해안에 사이트를 설정하고 "나는 해안까지 수영을 할 것입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익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 당신은 온 힘을 다해 수영을 시작 하고, 머지 않아 당신은 피곤을 느껴집니다.
 - 당신은 그들을 물에서 거의 들어올릴 수 없고, 다리를 간신히 발로 차기도 하고, 소금물을 갠 단위로 삼키고 있고,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 우리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서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고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멀리 끌려갑니다.
 -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를 깨닫게 됩니다.
 -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엇인가 빠져 있으며, 그 격차를 메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
 - 그 때 우리는 해변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 이물은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해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 우리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해안에 갈 수 없고 영원히 수영할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유일한 논리적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왜?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우리의 삶은 계속 반대합니다.
 - 법은 상대주의의 세계에서 절대적입니다.
 - 우리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이제 이것은 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 내 상황을 깨닫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목소리가 들립니다 .
 - 나는 고군분투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내려갈 준비가 되었으며 음성은 "나에게로 오세요. 내가 당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돌아보니 범선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 자, 여기 이 범선이 있고 그 범선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나에게로 와 내가 너를 구해줄게!"
- 그래서 저는 지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 뭐라고 합니까?
 - “아니, 난 괜찮아, 내가 해낼거야. 나는 강하다.”

- “아니요, 방이 조금 더 있는것, 냉장고가 있는 보트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작은 선실을 원합니다...”
- 사람들이 절망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을 때 , 당신은 붙잡고 그가 당신을 끌어들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 그는 당신을 그의 배에 태웁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해안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입니다."
- “당신은 지금 내 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배에 탔고 나는 쉴 수 있습니다.
-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절망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Riptide에서 빠져 나와 자유의 삶을 얻었습니다.
-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났습니까?

이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구원을 위해 그를 믿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참하게 물에 몸을 펄럭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봅니다.
-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게 내 입장이야.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노래하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일하러 가고 , 일상 생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거룩하게 걸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유혹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에 빨리 들어가서 끔찍한 느낌을 받습니다.
-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 어떤 사람들은 그 비결이 삶에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 입니다 .
-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더 나은 법 체계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규칙을 씁니다.

- 적어도 한 달에 3번은 교회에 가야 합니다.
- 나는 우리가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주님께 수입. 나는 확실히 하기 위해 11번을 할 것이다(그리고 예수님이 느끼실 수 있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커버)

- 아,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 K-love만 들을게 (아직도 그런거야?)
- 카키색 옷과 버튼다운을 살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이미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들여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 답 또는 비밀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강물에서 끌어내실 때 당신이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 예수님이 당신을 데리러 오셨을 때 안에 있던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 범선.
- 당신은 범선에 있습니다.
- 범선의 동력원은 무엇입니까?
- 바람 입니다 .

• 고대 히브리인들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묘사하거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루아흐. 루아흐.
- 그것은 또한 그들이 호흡 또는 바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 내가 이 말을 쓰는 동안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뒷베란다 에 앉아 있었다 ...
- 힘이 있었다.
- 힘.
- 움직임.
-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 7장에서 바우로는 8장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을것인지를 암시했습니다. • 우리는 지난 주에 그것을 읽었지만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 저와 함께 이것을 보십시오:

로마서 7: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전에 우리를 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기록된 율법의 옛 방법이 아니요 성령의 새 길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

- 그는 '성령의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 대신 우리는
- 성령의 바람으로 구동합니다.
-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영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사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 다음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될 때 폭발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배운 많은 정규적이고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초대 교회를 역동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로 만든 것은 그들의 야망이나 은사, 재능,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 그는 이제 내 삶의 동력이 됩니다.
- 그는 내가 살고 있는 배의 돛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 그 바람은 항상 분다.
-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신 증거입니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 이것이 바로 다음 몇 구절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5-6

5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 삽화: 바람을 포착하다

-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Pic # 1(보트)

그림 # 2 (미 세일링)

- 이것은 올해 초의 몇 장의 사진입니다.

- 그리고 바다 바깥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 하지만 이번 여행은 처음으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나는 이야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설명)

- 그래서 나는 하나의 방향타만 작동하는 이 거대한 쌍동선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을 포착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우리는 영적으로 바람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과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 내 삶에 임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리고 사용하는지 입니다 .

- 나는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전부입니다.

-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 저는 여기에서 실용적이기를 원하고 이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 첫 번째는 이것이...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 내가 향해하고 있을 때...누군가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확장하다).

-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오래된' 브랜드 또는 옛 자아의 욕망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 충동.

- 식욕.

- 원하는 것.

- 욕망.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 입니다.

-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의 문제입니다 .
 -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마음을 둘 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거나 심지어 우리의 직업이 될 때, 바울은 우리가 만나는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 돛에서 바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 이제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 잠시만 시간을 내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 육신의 생각의 현재 상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 죽었습니다.
 - 살아있지 않습니다.
 -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 하나님의 일에는 영의 일, 영원한 일에는 감수성이 없습니다.
 - 그것이 조건입니다.
 -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 그것은 당신이 영적인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나는 여기에서 미친 신비한 이야기로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독교가 일일하고, 우리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수준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초자연적이지 않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 우리는 물리적 세계 이상,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 우리는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나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면 몸보다 영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 이제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먹어야 하는 거 맞죠?
 - 몸을 쉬게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나 자신을 영으로 본다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게 될 것 입니다 .

- 나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지지하거나 영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 영적인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 영적으로 운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그곳에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호흡, 곧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 이것이 그의 책이고 영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가 삶을 실천하려면 이 책을 알아야 합니다.
- 우리는 그것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 그는 영이시며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시킨다.
- 영에 마음을 두는 것, 즉 속삭임 또는 직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바로 여기 이 장,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신다고 합니다 .
- 마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 안에서 영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
-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 우리 마음의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래서 바우로가 얻고 있는 것은 당신과 내가 열쇠가있고, 우리가 돛을 다듬고 항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바람이 우리 돛에 있도록 계속해서 말입니다.
-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9-11

8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 당신이 자유,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신 안에 사시는 영의 주의를 움직일 때이며, 우리는 듣고 그가 인도하도록 합니다.
-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